

보험사 탐내는 금융지주... 금융계열사 간 시너지 높인다

신한금융, 종합금융 포트폴리오 구축
푸르덴셜생명, KB금융 효자 역할
하나손보, 인수 후 처음으로 순이익



국내 주요 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경쟁이 치열하다. (왼쪽부터) 신한금융그룹,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CI. /각사

국내 주요 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경쟁이 치열하다. 종합 금융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금융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효과를 꾀하기 위해서다.

◆신한금융, 종합 금융 포트폴리오 '완성'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금융지주는 BNP파리바그룹과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사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손보 시장에 뛰어 들었다. 신한금융지주가 BNP파리바카디프 손보의 지분 94.54%를 인수하면서다.

신한금융지주는 생·손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 오

렌지라이프를 인수하기도 했다. 신한금융지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신한생명과 새롭게 인수한 오렌지라이프의 합병을 통해 생보 시장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다.

지난 7월 '신한라이프' 사명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린 양사는 순조로운 성과를 거둬들이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올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4019억원을 기록하면서다.



여기에 손보 시장까지 진출을 본격화하며 종합 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것. 종합 금융그룹 포트폴리오 완성을 통한 금융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앞서 ▲KB금융지주의 푸르덴셜생명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손보가 최근 긍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지주 '효자' 자리매김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2020년 8월 K

B금융의 막내로 합류한 뒤 효자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들어 적자로 돌아선 KB생명과 달리 큰 폭의 성장폭을 보이며 업계의 눈길을 모았다. KB금융의 2021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푸르덴셜생명이 거둬들인 당기순이익은 192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9.1% 오른 수준이다. 푸르덴셜생명의 호실적은 3분기까지 지속됐다. 전년 동기 대비 469.4% 오른 6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

반면 같은 기간 KB생명의 누적 적자는 181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손보도 올 1분기 인수 이후 처음으로 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업계의 입지를 탄탄히 해가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교직원공제회가 보유했던 더케이손해보험을 인수해 지난해 6월

하나손보를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이후 하나손보는 종합 디지털 손보사를 꿈꾸며 다이렉트 시장 진출을 위한 상품 라인업을 대폭 확대해 왔다. 여기에 하나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모바일 방카슈랑스' 판매도 본격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하나손보의 올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규모는 59억원까지 확대됐다.

금융지주들의 보험사 인수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들의 종합 금융그룹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 보험사 인수가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등 기대효과를 누리기 위해 보험사 인수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렌딩머신·프리스탁·에프엠펀딩, P2P금융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총 36곳
금융위, P2P투자시 유의사항 발표
과도한 리워드 제시 업체 주의 당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자에 렌딩머신, 프리스탁, 에프엠펀딩 등 3개사가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하므로, 손실을 보전해 준다고 약속하거나 과도한 리워드를 제시하는 업체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렌딩머신, 프리스탁, 에프엠펀딩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는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된 곳은 3곳을 포함한 총 36곳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이 구비돼야 하고, 내부통제장치와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등이 구비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P2P투자시 유의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1. 자기자본 요건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2. 인력 및 물적설비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3.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
4. 임원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5. 대주주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6. 신청인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사항도 발표했다.

우선 P2P대출 특성 상 원금보장이 불가하므로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

P2P대출은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상품으로 투자금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투자자의 손실보전을 약속하거나,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높은 리워드, 수익률은 곧 차입자의 이자율로 반영되기 때문에, 추후 높은 이자율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차입자를 대상으로 대출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2P대출 이자는 수수료를 포함해 법정최고금리 연 20%를 넘어선 안된다. 단, 수수료에 담보권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영업은 중단되지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상황 등 이용자 보호업무는 유지하고 있다"며 "등록 못한 P2P업체가 폐업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NH농협銀, '제2차 ESG추진위' 개최

ESG추진성과 공유

NH농협은행은 지난 12일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제2차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ESG추진위원회는 농협은행의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추진방향을 총괄하는 협의체로 올해 농협은행 ESG추진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사업추진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적도원칙,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UN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등 글로벌

별 이니셔티브 가입, 금융위·금감원 주관의 지역채투자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실시하는 ESG 대외평가 'A등급' 획득 등이 있으며 내년은 탄소배출량 관리방안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을 측정·관리해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ESG평가기관의 대외 평가를 면밀히 준비할 예정이다.

지준섭 위원장은 "올해는 ESG경영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는 소기의 성과를 냈다면 내년은 더욱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ESG를 내재화해 '농협이 곧 ESG



지준섭 제2차 ESG추진위원회 위원장(농업·녹색금융부서 부행장)이 12일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G'란 말에 어울리는 ESG선도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권소원 기자

"IRP·연금저축으로 세제혜택 받으세요"

금감원 Q&A

Q. 최근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찾아보면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A.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운용할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전에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한도제한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000만

원인 경우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세법상 최대한도인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IRP는 관련 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며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 시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합니다.

셋째,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일부인출을 금지하고 있어 연금 납입 중 경제적인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권소원 기자 think@

하나금융, 마이데이터 브랜드 '하나 합'

흠어진 금융데이터 통합 서비스
4개 관계사의 차별화 서비스 개발중

하나금융그룹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룹 통합 브랜드 '하나 합'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 합은 지난 7월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가 마이데이터 본거지를 취득한 이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하나 합은 은행, 증권, 카드 등 다양하게 흠어져 있는 금융데이터를 하나로 합해 최적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금융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크게 두 가지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그룹 차원의 특화 상품 등을 마

련해 그룹 공통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의 외국환 관련 서비스, 하나금융투자의 배당정보서비스, 하나카드의 내주변 핫플레이스 서비스, 핀크의 금융SNS '리얼리 서비스' 등 4개 관계사 고유의 강점과 경험을 녹여낸 차별화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황보현우 하나금융 데이터총괄 상무는 "하나 합" 브랜드는 손님들께 보다 안전하고 손쉬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그룹의 의지를 반영한 마이데이터 브랜드"라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초개인화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나유리 기자